

*** 유료노인홈의 입주희망자의 속성과 시설요구에 관한 연구

- 한·일 양국의 비교 -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Demands of the Potential Residents of Privately Funded Housing for the Aged

- In reference to Korea and Japan -

이종협* / Lee, Jong-Hyub

강건희** / Kang, Kun-Hee

Abstract

The recent increase in elderly population poses various problems in the field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living environments for the aged. Providing enough housing for the elderly has become one of the fundamental goals in social welfare policies. In light of these current con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emands of the aged in terms of the standards of living conditions in which they would be satisfied in order to better serve th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esign data for architects and builders by analysing the demands and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in privately-owned housing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The method of this research was based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polls taken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Because the polls show that the elderly want to continue their current life-style after placed in a elderly-care facility, when designing housing for the elderly, it must not be considered separate from the general society. it must be designed in way so that the residents can fully interact with the general society. Also, in order to achieve above goals, social welfare policies must be reconsidered to meet the needs of the aged population.

키워드 : 유료노인홈, 입주희망자, 시설요구

1. 연구의 배경

근년의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의 문제는 급격히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주택의 공급은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보람을 목표로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적 부분인 것이다.

종래의 주택공급은 인구의 증가, 도시의 집중이라는 커다란 범위안에서 검토되어 왔으나 이제는 고령화의 대응이라는 과제가 한층 더 부가되면서, 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나타나게된 사회적 제 현상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핵가족 및 노인 단독세대등이 출현하면서 이들이 주거형식에서 주요한 형식이 되면서, 노인홈의 주형식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주거 환경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일반 주택과 같이 노인홈 역시 도시에서의 지가양등, 고령자의 경제 조건을 생각할 때 완전한 주거환경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지만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의미의 하나로 주민이 어떠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희망하는가를 적절히 파악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형식의 하나인 민간 유료 노인홈(이하 홈)에 대해 이제 시작단계인 한국과 이미 30여년간의 경험을 가진 일본의 홈 입주희망자의 다양한 속성, 요구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이후 홈의 설계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2. 조사의 개요 및 내용

2.1. 개요

한국의 경우는 홈 계획을 위하여 홈설치 예정지 주변지역(서울,분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과 겸직교수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본 논문은 '98학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당,수원) 중류세대의 50세 전후 1,700인을 대상으로 1995년 5월 직접 면담한 양케이트중 유효한 1,326개체 (이하 『S社』¹⁾), 일본의 경우는 全國有料老人Home協會의 1993년 9월 20,600인에 대해 실시한 우편 양케이트중 유효한 3,087개체의 자료인 『有料老人Home에 關한 基礎調査』(이하 『協會』²⁾), 東京工業大學建築學科 青木研究室의 동경 시내 거주자 전화 번호부에서 랜덤 추출한 2,010인에 대해 실시한 1995년 10월 우편 양케이트중 유효한 379개체 (이하 『青木研』³⁾)를 이용하여 비교분석 한다. 『青木研』의 내용은 연구자가 東京工業大學建築學科 青木研究室 客員研究員 時 조사내용임.

비교항목의 내용은, 답변자의 속성에 대하여 1) '성별,연령', 2) '직업', 3) '입주희망시 가족상황' 4) '입주희망시 신체적상황', 5) '노후 불안요소와 입주희망 이유', 6) '노년의 시작시기와 입주희망시기'의 6개항목과, 라이프 스타일과 시설의 요구에 대하여 1) '입지 환경' 2) '거실의 크기, 흙의 정원 규모', 3) '공용부 요구 시설'의 물리적 하드적면 3개항과, 1) '흙에 필요한 건강관리, 개호 서비스와 시설에 중요한 서비스' 2) '식사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적면 2개항, 또한 '흙의 선택'과 '월 이용료의 조달' 등의 항목에 대해, 각 조사항목의 답변이 많은 3개의 항목을 상호 비교하였다.

3. 흙 입주 희망자의 속성

3.1. 속성

(1)성별·연령

흙 입주 의사를 가진 남녀의 분포는 『S社』, 『協會』의 경우 1:1, 『青木研』은 3:1의 비율이었다. 연령의 분포는 『S社』 경우 50대, 『協會』, 『青木研』의 경우 60대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조사 대상의 연령층을 50대 중심으로 설정하여 50대가 주를 이루었고, 일본의 경우 흙의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60대가 흙의 최대 수요 연령층임을 알 수 있다.

<표 1> 性別·年齡分布

	『S社』	『協會』	『青木研』
回答者數	1,597	3,087	379
男	52%	45%	75.4%
女	48%	54%	24.6%
50歲未滿	20.7%		25.1%
50代	48.3%	15.3%	26.7%
60代	24.6%	53%	31%
70代	5.4%	25.7%	14%
80代	0.3%	3.6%	3.2%

1)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iken Sekkei, SamSung Intelligent Town, 1995.

2) 社)全國有料老人ホーム協會, 第3回有料老人ホームに 關する 基礎調査, 1993.

3) 東京工業大學 工學部 建築學科 青木研究室, 有料老人ホームの設計條件に 關する 基礎的研究, 1996.

(2) 직업

현 직업은 조사 모두 회사원, 주부가 전체의 50%를 점하였다.

<표 2> 職業構成分布

『S社』	『協會』	『青木研』
자영업 27%	회사단체직원 34%	회사원 38.6%
주부 23.4%	전업주부 18.8%	자영업 21.9%
회사원 22.9%	공무원 11.0%	주부 12.1%

(3)입주 희망시기의 가족상태

입주 희망시기의 가족상태는 『S社』, 『協會』의 경우는 부부, 독신의 순이고, 『青木研』은 해당 항목이 없었다.

<표 3> 入住希望時의 家族狀態

	『S社』	『協會』	『青木研』
독신	48%	46.1%	해당항목없음
부부	52%	50.3%	
기타		2.8%	

(4)입주 희망시기의 신체적상태

입주 희망시기의 신체적상태는 3 조사 모두 '건강', '허약해 졌을때'의 순이었다.

<표 4> 入住希望時의 身體的狀態

『S社』	『協會』	『青木研』
건강 67%	건강 56.3%	건강 57.3%
허약 33%	허약 39.8%	허약 19.4%
	독신이 되면 0.3%	독신이 되면 15.6%

(5)노후 불안요소와 입주희망 이유

노후 불안요소는 『S社』, 『青木研』 모두 '병이 났을때', '배우자 사망시', '경제적 문제'의 순이었고, 입주 희망 이유는 『S社』의 경우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고령자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의 순이었고, 『協會』의 경우 '일상생활의 보살핌과 개호의 필요', '자식과 별도생활', '노인 단독세대'의 순이었다. 이 결과는 양국의 생활관습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표 5> 老後의 不安要素

『S社』(2항선택)	『協會』	『青木研』(3항선택)
병이났을 때 49.1%	해당 항목 없음	병이났을때 32.8%
배우자 사망시 25.9%		배우자 사망시 22.5%
경제적문제 8.8%		경제적문제 20.8%

<표 6> 入住希望理由

『S社』	『協會』	『青木研』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24%	일상생활의 보살핌과개호 44%	해당항목 없음
연령이같은사람끼리 함께살고싶어서 22%	자식과부모는 별도 26.7%	
고령자를위한시설에서 살고싶어서 15%	자식이없어서, 함께살기싫어서 23%	

(6) 노년 시작되는 시기와 입주 희망시기

노년의 이미지에 대하여, 노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대하여 「S社」의 경우 60대, 「靑木研」의 경우 70대의 답이 많았고, 입주 희망시기에 대하여, 「S社」의 경우 60대, 「協會」의 경우 「시기는 아직 결정 지어있음」이 42.3%이고, 「결정 지어있음」의 회답자 57.2% 중 「1~3년 이내 입주희망」의 분포는 60, 70대가 71.9%로 제일 많았다.

<표 7> 老年의 始作時期

·S社· (예정시기)	·協會·	·靑木研·
66세~70세 41.5%	해당항목 없음	65세~69세 29.8%
71세이상 31.5%		60세~64세 26.2%
61세~65세 21.8%		70세~75세 15.9%

<표 8> 入住希望時期

·S社· (예정시기)	·協會· (1년~3년이내)	·靑木研·
66세~70세 41.5%	65세~69세 29.8%	해당항목 없음
71세이상 31.5%	60세~64세 26.2%	
61세~65세 21.8%	70세~75세 15.9%	

3.2. 라이프 스타일의 경향

현재 하고있는 취미 활동과 현재는 하지않지만 후에 하고싶은 취미 활동에 있어서, 「문화활동」, 「스포츠」, 「오락활동」의 3분야에 대해, 각3개씩 답변한 항목을 비교하였다. 「S社」의 경우는 오락활동의 분야에 2개를 답하는 조건이었다. 현재 하고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 양 조사모두 내용은 같았으나 인기의 순위가 달랐다. 특징은 그룹활동보다 혼자 또는 소수로 활동을 이루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또한 「그룹활동을 하지않음」의 분포가 「S社」의 경우 43.7%, 「靑木研」의 경우 53.7%로 거의 50%정도가 그룹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9> 現在 하고있는 趣味活動

	·S社·	·靑木研·
문화활동	T·V,라디오 독서 원예	T·V,라디오 독서 원예,영화·연극관람
스포츠	등산 산보	여행 산보 골프
오락활동	장기 마작·카드 가라오케	가라오케 마작·카드 장기

<표 10> 現在 하지않지만 앞으로 하고싶은 趣味活動

	·S社·	·靑木研·
문화활동	서예, 원예, 사진·비디오	도예,조각 원예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스포츠	수영 골프	수영 하이킹 여행
오락활동	경마·경륜 장기 가라오케	당구 장기 마작·카드

금후에 하고싶은 취미활동에 대하여, 「문화활동」은 현재하고 있는 활동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는 활동이 많았고, 「스포츠」는 「수영」의 인기가 높았다. 「S社」의 경우 「골프」를 선택 하였으며 「오락활동」의 경마, 경륜, 마작, 카드를 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3.3. 입주 희망자의 요구

(1) 하드적인 면

1) 희망입지

입주희망층의 입지에 대하여 「S社」의 경우 해당항목이 없었으나, 「協會」의 경우 3개를 선택하게하여 「가까운곳에 의료기관이 있는곳」이 67.5%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기후가 온난」, 「자연 환경이 좋은곳」, 「현재 살고있는 장소와 가까운곳」, 「쇼핑에 편리」의 순이었다. 「靑木研」의 경우는 이조건을 더욱 자세히 분류하여, 「환경」, 「입지조건」, 「교통의 편리함」, 「쇼핑의 편리함」의 4항목에 대하여 「지역의 분위기를 알수있는곳」, 「도심에 가까운곳」, 「역까지 도보로 10분이내」, 「쇼핑장소까지 10분이내」, 순의 결과를 얻었다.

「協會」, 「靑木研」양조사 결과, 흙의 입지는 도심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를 희망하였고, 특히 고령자인 관계로 「기후가 따뜻한곳」, 「조용한지역」을 선택한 경향이 있었다.

<표 11> 希望立地

·S社·	·協會·	·靑木研·
해당항목 없음	가까이의료기관이있는곳 67.5%	도심과가까운곳 50.8%
	기후가따뜻한곳 42.5%	교외 34%
	자연환경이좋은곳 35.1%	역까지도보10분이내 61.9%
	현재사는곳과가까운곳 26.2%	
	쇼핑이편리한곳 24.6%	쇼핑장소까지10분이내 76.4%

2) 거실의 넓이, 양식, 향, 흙의 정원규모

홈내의 시설에 관한 3조사내용 중 비교분석 가능한 항목인, 거실의 넓이, 양식, 향, 흙의 정원규모의 해당 조사내용에 대하여 기재하였다. 「靑木研」은 ① 「이상: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지않은 이상조건」 ② 「양호:알맞은 좋은조건」 ③ 「최저: 이 이하면 입주않는 최저의조건」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흙의 입주형태가 1인 또는 부부인 경우뿐이므로 1인, 부부로 분류하였다. 거실의 넓이에 대하여, 「S社」의 경우, 1인은 「15평(49㎡)」, 「18평(59㎡)」, 「12평(39㎡)」의 순으로 평균 「16.5평(54㎡)」, 부부는 「21평(69㎡)」, 「18평(59㎡)」·24평(79㎡)·27평(89㎡)의 순으로 평균 「24.1평(80㎡)」였다.

「協會」의 경우, 1인은 「40㎡」, 「30㎡」, 「50㎡」의 순으로 평균 「41.1㎡」, 부부의 경우 「50㎡」, 「60㎡」, 「40·70㎡」의 순으로 평균 「55.5㎡」이었고, 「靑木研」은 3개의 조건에 대해 제일많은 1개를 택하였다. 1인은 「50㎡」, 「40㎡」, 「30㎡」의 순으로 평균 「32㎡」, 「47㎡」, 「64㎡」, 부부의 경우 「70㎡」, 「60㎡」, 「40㎡」의 순으로 평균 「45㎡」, 「64㎡」, 「77㎡」이었다.

양식에 대해서는, 「協會」의 경우, 거실은 「和式」, 침실은 「洋式」, 「靑木研」은, 양호한 조건이 「침실+거실+1실」이었다. 향에 대해서는 「靑木研」 조사 뿐으로 「남향」, 「남,동향」의 순이고, 흙의 정원규모에 대해서는 「協會」 조사 뿐으로 규모는 「구애받지않음」, 「100실 까지」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거실의 넓이는, 한국의 경우, 1인, 부부의 평균치는 16.5평(54㎡), 24.1평(80㎡)이고, 일본의 경우, 「協會」의 평균치와 「靑木研」의 양호조건인 평균치가, 1인의 경우 41.1㎡와 47㎡, 부부의 경우 55.5㎡와 64㎡로 양조사치의 차이가 15㎡정도였으며 전체의 비교시, 한국이 일본보다 넓은 치수를 원하였다.

<표 12> 居室 넓이, 樣式, 向, 居室員規模

S社				양식 · 향 · 정원규모
넓이		이 부 부		
1인	부부	1인	부부	해당항목 없음
12평 22%	15평 9%	15평 9%	21평 22%	
15평 29%	21평 22%	18 · 24평 16%	27 · 30평 16%	
18평 24%	27 · 30평 16%			
21평 13%				

	「協會」				「靑木研」						
	1인	평균	부부	평균	1인	평균	부부	평균			
넓이 (㎡)	40 32%	41	50 20%	55	50 23.5%	32	이상 19.7%	70 60	45 64 77		
양식	거실 화식 41%	침실 양식 57%	양식 화식 38%	27%	침+거+식+부 65.2%	침+거+1실 68.3%	침+1실 65.6%	이상 양호 최저 70 60 40 34.9%	2침+거+식+부 43.3%	침+거+1실 33.1%	침+1실 42.4%
향	해당항목 없음				남 91.5%	남,동 80%	관계없음,서 37%	이상 양호 최저	남 90.5%	남,동 89.6%	동,서 59.5%
정원 규모	규모는 고려치않음 47.2%				100실까지 21.9%						
	50실까지 11.2%				해당항목 없음						

3) 공용부의 희망시설

필요한 흙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S社」와 「靑木研」은 라이프스타일의 조사를 위해 분류한 「문화활동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에 대해 각각 3개씩을 선택하였고, 「協會」는 시설 분류 없이 전 시설에 대해 3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결과를 보면 선택내용은, 보통의 생활과 취미, 건강생활을 지속 하는데 필요한 것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음을 표12의 결과로 알 수 있다. 특징은 「운동시설」에서 건강과 치료를 위한 「수영장」을 희망하였고, 「靑木研」의 「편익시설」에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와 돈 양면의 해결이 가능한 「간이 우체국」을 선택하였다.

<표 13> 共用部 希望施設

	「S社」 (각3개선택)	「協會」 (전체에서선택)	「靑木研」 (각3개선택)
문화활동시설	오락실 49.6%		도서실 55.9%
	강연실 37.2%		강연실 38.6%
	A·V룸 36.8%		레크레이션실 36.7%
	온실 32.9%	도서실 32.4%	오디옴 34.2%
	종교집회실 25.7%	하원·화단 19.6%	온실 21.5%
		다실 14.2%	
운동시설	온수수영장 68.4%	대목실 43.1%	온수수영장 82.1%
	건강상담실 49.6%	재활실 25.4%	건강상담실 67.5%
	트레닝실 54.1%	수영장 14.2%	트레닝실 61.8%
		매점 39.3%	
		이·미용실 29%	
		게스트룸 17.4%	
편익시설	약국 65.2%		간이우체국 60.9%
	24시간점 60.1%		24시간점 54.2%
	은행 53.1%		이·미용실 52.2%
	노인용품점 42.3%		약국 38.5%

(2) 소프트웨어

흙에서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서어비스중 중요한 부분인 「건강관리, 개호 서어비스」와 「식사 서어비스」의 2부분을 조사하였다. 「靑木研」은 해당항목이 없어 「S社」와 「協會」의 양 조사내용을 비교한다.

1) 흙의 필요한 건강관리와 개호 서어비스 및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어비스

「S社」는 흙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어비스를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고, 「協會」는 흙에 필요한 일상적인 건강관리·개호서비스를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였다. 「S社」는 「건강관리시설」, 「주거시설의 쾌적함」, 「의료시설과의 연계」의 순이었고, 「協會」는 「흙내의 개호」, 「병원과의 연계」, 「시설내의 진료」의 순이었다. 결과를 보면, 「S社」는 서비스보다는 시설의 기본적 내용이, 「協會」는 서어비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표 14> 흙에 必要한 健康管理·介護서어비스와 중요하다 생각되는 서어비스

「S社」 (3개선택합계)	「協會」 (3개선택합계)
건강관리시설 24.6%	흙내의 개호 18.6%
주거시설의 쾌적함 16.2%	병원과의 연계 18.0%
의료기관과의 연계 15.3%	시설내의 진료 16.6%
개호서어비스 14.5%	개호서어비스 14.5%

2) 식사 서어비스

흙의 식사 서어비스에 대하여, 「식당 서어비스 이용」과 「메뉴」, 「서어비스 방식」의 항목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메뉴」 메뉴와 서어비스 방식을 별도로 선택하고, 「協會」는 메뉴와 서어비스방식을 합하여 2개를 선택하게 하였다.

식당 서어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양조사 모두 80%이상이 희망하였고, 「메뉴」에 대해 「S社」는 「뷔페」, 「복수 메뉴」, 「協會」는 「복수정식」, 「필요 치료식」의 순이었다. 「서어비스 방식」은, 양조사 모두 「셀프서어비스」, 「테이블 서어비스」의 순이었다.

<표 15> 食事 서어비스

	·S社·		·協會·	
식당 서어비스 이용	항시 이용하고싶다	57.4%	항시 이용하고싶다	53%
	때때로에 이용하고싶다	34%	때때로에 이용하고싶다	26%
메뉴·서어비스방 식	복수정식	66.3%	뷔페	58%
	필요치료식	51.1%	복수 메뉴	22%
	식사시간변화가가능서어비스	23.3%	단일 메뉴	14%
	뷔페	34.4%	셀프서어비스	74%
	테이블 서어비스	12.7%	테이블 서어비스	26%

(3)홈의 선택과 월이용료의 조달

홈의 입주를 고려할시 중요시 하는것과 월이용료의 조달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1)홈의 입주를 고려할시 중요시 하는 것

이 항목에 대해서는 「協會」의 조사내용 뿐으로 비교가 불가능 하였으나 내용의 중요도로 인해 게재하였다. 홈에 입주를 고려할시 중요시하는 것에 대하여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였다.

회답자의 5할 이상이 홈의 운영, 개호, 의료에 대한 「경영자의 신뢰성」, 「개호 서어비스」, 「의료기관과의 연계」의 내용을 회답하였다. 이의 결과로부터 홈의 운영주체, 개호서어비스의 면이 홈의 선택에 기본적인 주안점이 됨을 알았다.

<표 16> 홈의 入住 考慮時 重要視 하는것

·協會·			
경영자의신뢰성	68.8%	거실의 쾌적성	40%
개호서어비스	61.5%	식사 서어비스	25%
의료 기관과의 연계	53.5%	홈내의인간관계	24%

2)월이용료의 조달

홈에 입주후 식비, 생활비등 월 이용료의 지불에 대해 3조사 모두 2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의 결과, 「S社」는 「예금」, 「개인연금」 등의 순으로 공적연금보다 개인이 준비한 것이 많았고, 「協會」, 「靑木研」은 「공적연금」, 「예금」 등의 순으로 연금의 쪽이 많았다. 이 이유는 한국의 경우 전국민에 대한 연금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7> 月 利用料(管理費, 生活費)의 調達

·S社·		·協會·		·靑木研·	
예금·보험	20.9%	후생연금	22.6%	공적연금	22.6%
개인연금	15.9%	예금	16%	예금·보험	21.8%
임대수입(부동산)	14.2%	공제연금	15.5%	국민연금	19.6%
퇴직금	12%	이자·배당	8.4%	개인연금	10.8%

4. 결론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한·일양국의 민간유료 노인홈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이트 조사 및 결과를 속성과 시설의 요

구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이들 내용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나 한국의 경우, 홈에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치 못하여 홍보를 겸한 내용이 많아 일반적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따른 홈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아 세부적 사항이 주를 이루어 양국의 비교가 곤란한 부분이 많았다.

1) 속성에 대하여

홈의 실수요 연령층은 양국 모두 60대가 주를 이루었으며, 직업은 회사원 및 주부가 50%를 이루었다. 입주시키는 부부로 건강할때를 희망 하였으며, 노후 불안요소에 대해서는 모두 「병이 났을때의 문제」였고, 입주이유에 대하여, 생활 관습과 문화의 차이로 한국의 경우 「자신에게 부담주기 싫어서」와 일본의 경우 「일상생활의 보살핌과 개호가 필요」를 가장많이 선택하였다.

2) 라이프 스타일의 경향에 대하여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하고있는 활동과 현재는 하지않지만 앞으로 하고싶은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양 조사 모두 내용은 같았으나 선호도의 순위가 달랐으며 그 특징은 현재의 활동은 그룹활동보다는 혼자 또는 소수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금후의 취미 활동중 문화 활동의 경우 현재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하는 활동을 선호 하였다.

3) 시설의 하드적인면 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입지에 대한 내용은 일본의 결과내용 뿐으로 도심에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곳을 선호하여 일상생활이 주로 도보로 해결이 가능한곳을 원하였으며, 특히 고령자인 관계로 기후가 따뜻하고 조용한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거실에 대한 넓이, 양식, 실의 구성, 향 및 홈의 정원규모에 대한 내용 역시 넓이에 대해서만 비교가능 하였다. 한국의 경우 1인, 부부의 평균치는 54m²(16.5평), 80m²(24.1평) 이고, 일본의 경우, 1인 의 경우 41.1m², 47m² 부부의 경우 55.5m², 64m²의 결과치 였고, 양식에 대해 일본의 경우 거실은 화식(和食) 침실은 양식(洋式), 실의구성에 대해 일본의 경우 1인, 부부 모두 침실+거실+1실을 원하였다. 향에 대해 일본의 경우 남, 동향을 원하였으며, 홈의 정원규모에 대해 일본의 경우 규모에 구애받지 않음을 선택하였다.

공용부의 희망시설에 대한 요구는 양국 모두 새로운 시설보다는 현재의 일반적인 생활과 취미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내용들을 희망하였다.

4) 시설의 소프트적인면 에 대한 요구는 서어비스에 대한 것으로

홈의 가장 중요한 의료 서어비스에 대해 한국의 경우는 시설의 기본내용인 「건강관리시설」을, 일본의 경우는 서어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홈내에서의 개호」를 선택하였다.

식사 서어비스에 대해 양 조사 모두 80%이상이 식당을 이용한 셀프서어비스를, 메뉴에 대해 한국의 경우 「뷔페식」, 일본의 경우 「복수정식」을 선택하였다.

5) 홈의 입주를 고려할시 선택항목에 대해 일본의 경우 「경영자의 신뢰성」, 「의료관계 서어비스」면이 홈의 선택에 중요 요소 였으며,

월 이용료의 조달에 대해 한국의 경우는 개인이 준비한 「예금과연금」,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이 주를 이루었다.

이상의 결과, 입주희망자의 요구에 대한 결과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노인홈 입주희망자의 대다수가 원하는 주 환경은 현재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와 격리된 홈보다,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가 유지 가능한 홈의 주 환경을 원하였다.

그러므로, 노인홈은 현재의 지역사회와 격리된 홈이 아니라, 고령자가 현재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수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야하며, 이를위해 물리적 레벨에서의 환경 정비가 아닌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고령자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문화적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社)全國有料老人ホーム協會, 第3回有料老人ホームに関する基礎調査, 1993
2. 東京工業大學 工学部 建築學科 青木研究室, 有料老人ホームの設計 條件に関する基礎的研究, 1996.
3.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NikenSekkei, SamSung IntelligentTown, 1995.
4. 川村邦由, これからの有料老人ホーム, あけび書房, 1994.
5. 최성재, 고령화사회의 노인시설의 종류와 전망, 건축, 건축학회, 1998.2.
6. 상형중,수요 및 공급측면에서 본 유료노인시설의 접근방향,건축,건축학회, 1998.2.

<접수 : 1999. 1. 30>